

중기 지원 정책성 · 애로해소 강화

전북중기청 지원협의회 개최 방문·체험방식으로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6일 전북중기청청사를 비롯한 28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전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단체가 매월 1회 한자리에 모여 지원정책, 현안·이슈, 기업 애로·규제 공유 및 해소, 협업과제 발굴·공동 대응 등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정책소통기구다.

이번 11월 지원협의회는 주요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체험하는 '찾아가는 정책현장 지원협의회'로 진행해 현장감 확보는 물론 정책성과 홍보와 윈윈 애로해소를 크게 강화하는 정책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인 원주의 대주코레스(대표 박주정)를 방문하여 공장견학과 사업현황을 소개받으며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혁신형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부안 슬지네제빵소(대표 김갑철) 현장에서 '제56회 전북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소상공인 백년가게 선정업체인 부안 계화회관(대표 이화자)에서 만찬간담을 갖는 자리로 진행됐다.

기업소개 자리에서는 화장품(마스크팩) 제조업체인 '유스타코스메틱'(대표 김은주)과 자연 보리차제품 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6일 전북중기청청사를 비롯한 28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전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업체인 '아이보리'(대표 장현정)에서 회사 소개와 애로 건의가 있었으며, 지원기관은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북중기청의 수출·인력·공공구매, 창업·벤처·R&D,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에 대한 10월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1월 추진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장들의 업무 추진계획 등의 보고가 있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오늘이 자리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과 협단체가 함께 정책현장 속에서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카페인 함량 낮추고 커피 맛은 '그대로'

농진청, 국산 검정보리 '흑누리' 활용 커피 개발 베타글루칸 등 성분 들어있어 임신부들에게 좋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정 비율의 디카페인 커피 원두를 국산 검정보리인 '흑누리'로 대체해 카페인 함량을 낮추고 베타글루칸 등 기능성분이 들어있는 디카페인 '보리커피'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카페인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임신부나 수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디카페인 커피 수요도 늘고 있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검정보리인 '흑누리'는 디카페인 원두와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커피 맛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함량만 90% 이상 줄었다. '흑누리' 품종을 이용한 보리커피의 드립 시간이 가장 짧았고 맛 평가 결과도 좋았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검정보리인 '흑누리'는 디카페인 원두와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커피 맛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함량만 90% 이상 줄었다. '흑누리' 품종을 이용한 보리커피의 드립 시간이 가장 짧았고 맛 평가 결과도 좋았다.

디카페인 원두와 흑누리, 일반원두를 6 : 3 : 1 비율로 배합하였을 때 카페인 함량은 0.95mg/g이었으며, 색깔, 향, 맛 등의 선호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흑누리 보리커피 1잔에는 커피에 없는 보리의 기능성분인 베타글루칸이 88mg, 안토시아닌도 42mg 보리는 무카페인이므로 선호하는

일반 원두를 10% 정도 혼합하여 다양한 맛의 디카페인 커피를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보리커피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보리커피 제품에 대해 79%가 구매의향이 있으며, 임신부나 수유 산모에게 62%가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리커피는 구수하고 건강한 맛이 느껴져 좋았고, 더치 일렉 등 다양한 포장과 형태로의 판매가 필요하며 보리커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원두 수입 절감과 보리의 부가가치 향상에 따른 새로운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검정보리인 '흑누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저카페인 커피도 개발하여 우리 보리와 커피와의 융합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웰빙커피 산업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상호금융

전문가그룹 육성 발대식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이 지역 농·축협의 지속성장 가능한 상호금융을 이끌어 가기 위해 6일 지역본부에서 상호금융전문가그룹 육성(Best + Talented + Stars)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여신부 4명, 채권관리 5명, 리스크 관리 5명 등 14명을 상호금융전문가그룹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북농협은 상호금융 전문가로 위촉된 직원들이 상호금융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제도·업무 개선으로 농업인과 고객에게 최상의 상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도시재생 물리적 해법 모색

오늘부터 21일까지 '도시재생 집중포럼' 열려

도시재생 분야에서 물리적 재생의 원천을 추진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는 집중포럼이 열린다.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반영선)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 '도시재생 집중포럼'을 '물리적 재생·지역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연다.

현재 전북도 17개 사업지역(2019년 상반기 기준)에서 활성화지역의 향후 가능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거리경관 개선, 생활SOC공급 등 다양한 물리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필요에 기반한 하드웨어 추진, 하드웨어 운영주체 육성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포럼은 '물리적 재생' 분야에 집중해 7일 '도시재생과 생활SOC', 14일 '도시재생과 주민참여디자인', 21일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3개의 소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발제를 하고 전라북도 시·군 도시재생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총괄코디네이터, 공무원 등이 함께 토론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7일 '도시재생과 생활SOC'라는 주제로 열리는 1차 포럼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은영 박사가 '지역 주도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공급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계획가 조준배 단장은 '서울·영주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재생에서 생활SOC와 공공건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반영선 센터장은 "전라북도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포럼을 준비하게 됐다"며 "포럼을 통해 전라북도 도시재생 사업 중 물리적 재생 분야에서 과제를 도출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집중포럼'은 이날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북개발공사(TEL 280-7492,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1층 강당에서 열린다.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센터 네이버블로그(blog.naver.com/jeonbuk-urb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뉴스마트뱅킹' 리뉴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전북은행의 대표 스마트뱅킹서비스인 '뉴스마트뱅킹'을 리뉴얼하여 지난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마트뱅킹 리뉴얼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초 설치 고객을 위한 게이팅화면이 추가됐다. 게이팅화면은 최초 설치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버튼을 단순화하고, 스마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및 인증절차를 자동으로 제시한다.

둘째, 이체서비스 개선이다. 기존에 개별 이체거래들을 하나의 메뉴로 통합하여 거래동선을 단순화하고, '동일하게 이체하기' 등 생활밀착형 편의기능을 추가했다.

셋째, 인증수단의 다양화이다. 기존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인 경우 비밀번호를 13자리나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패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리

그인 및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간편비밀번호의 경우 6자리 숫자 6자리를 입력하면 별도의 추가 인증절차 없이 1일/1회 200만원 한도로 이체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은행권 공동업무로 추진 중인 오픈뱅킹서비스가 지난 10월 30일자로 적용됐다.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들은 뉴스마트뱅킹에서 전북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참가은행의 계좌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전북은행은 오는 12월 창립 50주년 및 뉴스마트뱅킹 리뉴얼을 기념하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창립 50주년 스마트뱅킹서비스 개선 관련 이벤트는 그 어느 때보다 푸짐한 리워드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님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미션달성과 같은 Fun 요소를 가미한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자연의 신선함을

건강의 시작! 푸르밀로부터

푸르밀은 자연의 푸름, 순수함, 신선함을 뜻하며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하는 기업이념을 담았습니다.

푸르밀 전신소매 하지원

문의처 : 080-700-2001 / www.purmill.co.kr

JB문화공간 11월 개관 기념 포럼 행사 안내

11월 7일(목) 19:00 - 21:00

11월 14일(목) 19:00 - 21:00

11월 21일(목) 19:00 - 21:00

전북은행 창립 50주년 맞아 한옥마을에 JB문화공간 개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6일,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전북은행 한옥마을지점 2,3층에 도민과 고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JB문화공간'을 설립해 오는 12일 개관식을 한다고 밝혔다.

JB문화공간은 '기분 좋은 문화나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전주시민들 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한옥마을 지점 건물에 자리 잡은 JB문화공간은 2층 라운지카페와 소회의실, 3층 다목적실과 음악감상실, 옥상 투포탑을 갖추고 공연과 강좌, 문화감상,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시 개관식과 함께 소설가 성석제의 인문학 강연을 시작으로 14일 황성수 의학박사의 건강특강, 16일 가수 김도환과 스위트폴의 소극장 콘서트, 23일 소통 라이브 뮤지션 '고나번드' 투포탑(JB Pop+Com)에서 버스킹 공연 더불어 14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는 재즈피아니스트 김성수의 소규모 공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12월까지 다양한 강연, 공연과 이벤트로 구성된 '개관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다. /김윤상 기자